해외 고승 지상법석 — 여름 특집

생활화 되어야 해요”

장애·망집·들뜬 마음을 견뎌내고 참으로 비어 있으려면 참는 것을 배우는 길 밖에 없습니다

‘빨리 빨리’ 서두르면 무지·혼란 못벗고 불평만 늘어 ‘붙들지 말자’ 마음 비우면 의심·불만·공포도 줄어

것입니다.

설혹 열대병에 걸리더라도 집에 돌아가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을 생각일랑 아예 일으키지 않고 일년이 되더라도 능히 버텨낼 각오가 되지 않았다면 어찌 참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단 깨달기만 하는 날이면 깨닫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재미있는 최신식 사람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도 한일 깨달을 수가 있다면 틀림없이 그때는 잔뜩 교만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미안하게도 부처님의 지혜는 교만과는 매우 거리가 먼 지혜입니다. 오히려 부처님처럼 지혜로워지려면 엄청난 참을성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유별나거나 매혹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지혜는 핵물리학자나 정신과 의사 또는 철학자가 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질의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대단히 겸허한 것인 바, 모든 생기(生起)하는 것들은 반드시 소멸하며 자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이나 정신에 어떤 조건이 발생하면 그것이 조건지워진 것임을 알며 이 조건 역시 생기한 것이기에 반드시 사라지게 마련이라는 것도 아는 것입니다.

또한 조건지워지지 않은 것은 조건지워지지 않은 대로 바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번 찬찬히 생각해 봅시다. 방금 조건지워지지 않은 것이라 말했는데 조건지워지지 않은 것을 안다는 일이 정말 재미있고 매력적인 일일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재미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응당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절대자인 신(神)이랄까 법(法)이랄까를 알고 싶다. 얼마나 기막히게 재미나는 일이겠는가. 그것이야말로 온통 축복이요 황홀한 느낌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명상하는 가운데서 그와 같은 경험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높이 올라가는 것이 그런 경지에 다가가는 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건지워지지 않은 것이 주는 재미는 마치 이 방 안의 공간과 같은 것입니다. 이 방 안의 공간,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매우 재미있습니까? 나에게는 재미있지 않습니다. 이 방 안에 놓인 물건들이야 물론 재미있기도 하고 또는 없기도 하고, 아니면 좋거나 나쁘거나 아름답거나 추하거나 할 테지요. 하지만 공간은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해 정말로 그대가 할 수 있는 말이나 생각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비어 있다는 점 외에는 어떤 성질도 갖고 있질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비어 있으려면 참는 것을 배우는 방법 밖에 달리 길이 없습니다.

거기엔 잡을 수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기에 공간을 깨달으려면 방 안에 있는 어떤 물건도 붙들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방 안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열중하고, 판단하고, 비관하고 평가하기를 멈출 때, 여러분은 그 방의 공간을 비로소 체험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많은 참을성과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자만심으로 차 있는 한 우리는 기껏 불상(佛像)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또는 후불탱화가 어떻고 벽의 색깔이 어떻다는 둥, 또는 아잔 문스님의 사진을 보면 신심이 난다, 아찬 챠 스님의 사진이 더 그렇다는 등 별의별 견해가 생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 이 공간에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할 때… 몸이 쑤시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들뜨거나 졸립게 됩니다. 그 때 우리는 참아내면서 눈여겨 살피고 귀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소리에 귀기울입니다. 마음의 불평 소리들을,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걱정하는 그 소리들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어떤 별나게 재미있거나 매력적인 인물로 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생기(生起)한 모든 것은 사라진다는 사실에 대한 단순한 인식, 가식 없는 인식으로서 그렇게 할 뿐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따히 그뿐, 조건지워진 것은 조건지워진 것으로 그리고 조건지워지지 않은 것은 조건지워지지 않은 것으로 아는 것, 그것 뿐입니다.

모든 부처님은 조건지워지지 않은 데에 머물고 계시며,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더 이상 어떤 것에 대해서든 몰두하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 분들은 더 이상 어떤 조건에도 매혹되지 않으시며, 공간 안에 있는, 늘 변하기만 하는 이들 조건들에 마음 쓰시기보다는 조건지워지지 않은, 비어 있는, 공(空)의 쪽에 마음을 기울이십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이 참선하면서 마음을 비우는 쪽에, 공 쪽에 마음을 쓰게 되면 온갖 조건들(行)에 대한 습관적 갈구, 매료, 반감, 공포, 의심, 불안 등이 줄어듭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다만 왔다 가란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돌아보면 이 무지한 마음이야말로 시종일관해서 무엇이든 만나는 쪽쪽 분별하고 평가하면서 어떤 것에는 매달리려 애쓰고 어떤 것으로부터는 피하려 애쓰며 모든 시간을 보내어 온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한 얘기를 깊이 숙고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모든 시간을, 못 견딜일을 견뎌내는 데에 써 보십시오. 아무리 못 견딜것 같던 일도 참을성으로 대하면 견딜만 하게 됩니다. 남들을 그리고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참고 견디어 보십시오.

그것에서 굳이 잘못된 면만 찾아내려 들고, 그래서 나 같으면 이렇게 만들고야 말 것인데 하고 고집부리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제 나름으로 갈길따라 전개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는 조건들을 그대로 놓아둘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왔다가 갈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만두어도 사라져 갑니다. 따라서 구태여 그들을 쫓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사물을 제 갈 데로 가게 내버려 둘 수 있게끔 충분히 자유롭고 참을성 있고 버틸 힘이 강해진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투쟁과 갈등으로 부터, 무지한 마음이 벌이는 그 끝없는 혼란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했을텐데라고 고집부리지 마십시오 불평하고 저항하여 마찰을 빚지 않고도 얼마든지 평화롭게 살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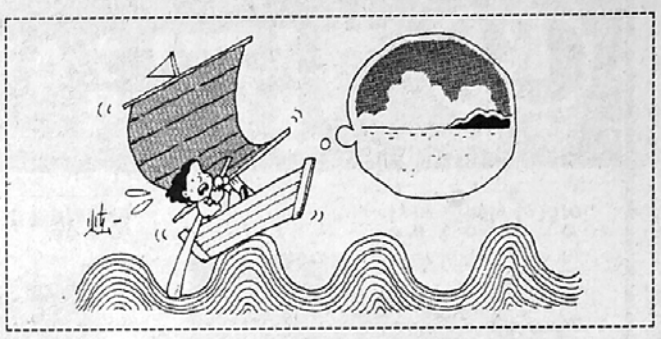
이제 우리는 조건들을 그대로 놓아둘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왔다가 갈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만두어도 사라져 갑니다. 따라서 구태여 그들을 쫓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사물을 제 갈 데로 가게 내버려 둘 수 있게끔 충분히 자유롭고 참을성 있고 버틸 힘이 강해진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투쟁과 갈등으로 부터, 무지한 마음이 벌이는 그 끝없는 혼란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돌아보면 이 무지한 마음이야말로 시종일관해서 무엇이든 만나는 쪽쪽 분별하고 평가하면서 어떤 것에는 매달리려 애쓰고 어떤 것으로부터는 피하려 애쓰며 모든 시간을 보내어 온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한 얘기를 깊이 숙고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모든 시간을, 못 견딜일을 견뎌내는 데에 써 보십시오. 아무리 못 견딜것 같던 일도 참을성으로 대하면 견딜만 하게 됩니다. 남들을 그리고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참고 견디어 보십시오.

그것에서 굳이 잘못된 면만 찾아내려 들고, 그래서 나 같으면 이렇게 만들고야 말 것인데 하고 고집부리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제 나름으로 갈길따라 전개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것은 그럴 수 밖에 달리 길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러한 세상을 참고 수용하는 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한다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거나 좋아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나의 말은 자신의 혼란을 실제로 인정해주어 그렇지 않아도 혼란투성이인 이 세상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라는 뜻, 불평하고 저항하여 마찰과 혼란을 빚지 않고도 얼마든지 평화롭게 그 속에서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과학속의 불교 — 불교속의 과학 36

양 형 진

색즉시공(色卽是空)

허공중의 에너지 인연으로 물체 드러내 색의 본 바탕은 생멸하지 않는 공의 세계

반야심경의 너무도 잘 알려진 구절이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다. 색이 즉 공이고 공이 즉 색임을 설명하고 색과 공이 다르지 않음을 보이고자 한다. 굳이 색즉시공의 주어를 색이라고 본다면 색이 곧 공이라는 말은 우리 눈 앞에는 색이 마치 실재하는 것처럼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는 사대(사물의 제 요소)가 화합하여 인연따라 잠시 나타난다는 것으로서 자성으로서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니 연기무자성공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하겠다. 굳이 공즉시색의 주어를 공이라고 본다면 공이 곧 색이라는 말은 공이 허무단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색의 세계가 이 공으로부터 현현하니 색의 무한한 가능성을 공이 내포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진공묘유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하겠다.

진공묘유에서 설명하였듯이 색은 마치 잔잔한 바다에 바람이라는 인연이 닿아 생겨난 파도와 같은 것이다. 지금 당장은 파도라는 물 덩어리가 표면 위에 솟아 있지만 그 파도의 본성은 오직 바닷물일 뿐이니 바람이라는 인연이 다하면 바다라는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밖에 없다. 더우기 그 파도 자체가 바다이다. 그러므로 우리 눈 앞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본성은 공한 것이기 때문에 색즉시공이 된다. 자성이 없는 것이 연기에 의해 잠시 나타나는 것이므로 공이라고 하는 것이다.

현대 물리학이 기술하는 물질관이 정확하게 이 파도와 바닷물의 비유와 같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에너지는 물질과 같다. 이는 유명한 $E=mc^2$ 이라는 공식으로 표현된다. 물체의 질량은 (색 혹은 파도는) 에너지로 (색으로서의 가능태로) 바뀔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이 에너지는 허공에(공 혹은 바다에) 퍼져 있게 된다. 이 에너지가 어떤 좁은 공간으로 결집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물체이다.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물체가 (색이나 파도는) 어떤 상황이 되면 (색이나 파도의 인연이 다하면)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에너지로 변하게 된다 (공 혹은 바다로 되돌아가게 된다). 이러한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 것이 허공이다. 또 이 에너지가 어떤 상황이 되면 (사대의 인연이 화합하면) 물체(색 혹은 파도)가 드러나게 된다. 그러므로 물체란 에너지가 결집된 것 이상이 아니어서 색의 바탕은 공이지만, 색을 떠나서 공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허공은 아무 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충만한 것이어서, 그 본성은 단멸공이 아니라 무한히 현현하는 색의 가능태이므로 색을 떠나서 공이 따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색을 떠나서 공이 존재하지 못하고 공을 떠나서 색이 존재하지 못하니, 이를 색체가 곧 공이요 공체가 곧 색이라 한다(色體卽空 空體卽色).

이를 다시 말하면 색성공(色性空)이다. 색성공이나 색체즉공, 색즉시공의 의미는 색이 멸하고 나서 공이 생겨난다는 것이 아니라, 색의 성품 혹은 색의 본 바탕이 공이라는 것이다. 파도가 곧 바다요 물체가 곧 에너지가 충만한 허공인 것과 같다. 그러므로 색과 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유마경에서는 불이법문(不二法門)이라고 이른다.

대품반야(大品般若) 봉발품(奉鉢品)에서 부처님은 사리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공 가운데에는 색도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색을 여의고 공이 없고 수상행식을 여의고 공이 없다.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며, 수상행식이 공이고 공이 수상행식이다. …모든 존재의 참성품은 생멸하지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다. 보살마하살은 이와 같이 생멸을 보지 않고 더러움과 깨끗함을 보지 않으며 행한다. 왜냐하면 이름이란 인연의 화합으로 된 것이어서 단지 분별과 생각으로 거짓되게 이름을 붙인 때문이며, 이 때문에 보살마하살은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 일체의 이름을 보지 않고, 보지 않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는다.”

우리는 여기서 사량 분별에 의한 일체의 이원론을 넘어서서 불이의 관점으로 세계를 관하는 불교적 세계관의 장쾌한 모습을 보게 되며, 이는 또한 보살마하살이 반야바라밀을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 하는 실천의 문제와 연결된다는것을 알게 된다. 〈고려대 교수·물리학과〉

삼화불교대학생모집

◎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학 과	수업연한	모 집 인 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30%
불교학과	2년	•주간 40명 •야간 20명	•고등학교 및 동등 이상 학력자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1통 •본교 소정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5매	•조계종 승려 포교사 (타종승려·포교사도 가능)
	4년	•통신 40명		
유아교육과(유아 포교과)	2년	•주간 60명 •통신 40명		
중국어과	2년	•주간 40명 •야간 20명		
불교미술과	2년	•주간 20명		
신문방송과(불교보도과)	2년	•주간 40명 •통신 20명		

2. 학교연혁

1989. 7. 3 학교설립공고
90. 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90. 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 8 본교학생 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증 취득
91. 3 전문부 주간·야간 2년제 개설
91. 8 본교학생 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1. 8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92. 2 제1회 졸업생 배출
92. 7 국가인정 유아교사 2급 119명 자격취득
92. 8 본교학생 29명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3. 2 제2회 졸업생 배출 유아교육과 95% 취업
93. 3 불교미술과·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 8 본교 학생 42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4. 2 제3회 졸업생 배출
95.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자격 49명 취득
95. 2 제4회 졸업생 배출
95. 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5. 8 중국남경 중의약대학과 자매결연

3. 특전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법사 자격증·불교 유아포교사 2급 자격증 수여
·성적 우수자 본대학 포교원·유아원 개설시 제정지원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자격고시를 거쳐)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 가능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95년 8월 23일까지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미술과는 작품 1점 제출)

5. 원서교부 문의처

본교 : 511-1080, 511-2026-8 조계사 앞 삼보원 : 732-9904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 바람

주소:우편번호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삼화불교대학

포교현장의 전문법사양성(3년과정)

’95학년도 동산불교 전문연구원 신입생 모집

1. 불교전문연구원 개설 취지

현대 물질문명의 발달에 따라 부처님 가르침의 필요성이 날로 더해가는 21세기를 대비하여 이제 대승불교의 상구보리, 하화중생, 보살도를 중생속에 실천하는 사명감 있는 전문법사, 포교사를 양성코저 3년과정의 동산불교 전문연구원을 개설함.

개 강 : 1995년 9월 4일(월)	
매주 월요일 오후7시 (95. 9. 4~96. 1. 29)	법화경원전(한정섭 법사 : 한국불교교화원장)
매주 화요일 오후7시 (95. 9. 5~96. 1. 30)	아미타불 수행론(태원스님(보국사)·석서진스님(서원사)

※ 과목별 주1회 강의(1학기 : 5개월)

2. 교과목 및 교수

	1학년		2학년		3학년	
경전과정 (매주 월요일)	1학기	법화경 Ⅰ	1학기	육조단경	1학기	구사, 유식
	2학기	법화경 Ⅱ	2학기	아함경 Ⅰ	2학기	화엄경·금강경
응용과정 (매주 화요일)	1학기	불교상담론	1학기	비교종교론	1학기	불교의식 Ⅰ
	2학기	기도수행법 (아미타불)	2학기	불교미술	2학기	포교담경영론

• 무진장스님(전 포교원장) • 한보광스님(동국대교수)
• 종범스님(승가대교수) • 정병조교수(동국대교수)
• 권기종교수(동국대교수) • 서윤길교수(동국대교수)
• 권탄준교수(동국대교수) • 박문곡스님(흥천안양사주지)
• 한정선박사(불교교화원장) • 홍윤식교수(동국대교수)
• 박 종교수(한국불교통신대학장)

※ 과목별 주1회 강의(1학기 : 5개월)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및 장소	비 고
정규반(40명) 통신반(40명)	①불교대학(정규)이수자 ②불교교양대학(2년)이수자 ③과목별 이수 희망자	①입학원서 1통 ②주민등록등본 1통 ③반명함판사진 3장 ④불교교양대학졸업증1통 ⑤자기소개서 1통	95년 8월5일 ~ 95년9월2일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매주 월·화요일 오후7시~9시(본 연구원 사무국)	통신반은 지방 거주자나 출석 수강이 어려운 자만 지원 가능

4. 입 학 금 • 일십만원

5. 졸업자격 • 검전과정(6과목 이수), 응용반(5과목 이수)합하여 11과목 이상 이수자에 연구원 졸업장(전문법사)을 수여함.

6. 원서문의 교부·접수 • 본 연구원 사무국(732-1206~8, 722-0408, FAX 732-1207) 서울 종로구 견지동 95-2

동산불교 전문연구원 원장 무진장

대한불교조계종 동산반야회 회장 김재일